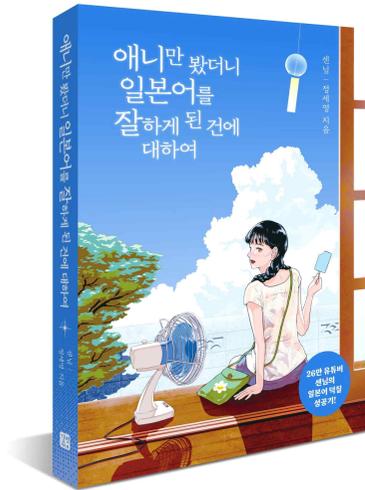


시간 보도자료

길벗이지톡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23-0586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오윤희(직통 02-330-9835)

애니만 봤더니 일본어를 잘하게 된 건에 대하여



제목 애니만 봤더니 일본어를 잘하게 된 건에 대하여
 발행 길벗이지톡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지은이 선님(정세영)
 사양 값 18,500원 / 총 256쪽 / 판형 125*185
 ISBN 979-11-407-1148-2 (03730)

분야 참고: 국내도서 > 국어와 외국어/사전 > 일본어 > 일본어 입문서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 에세이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학/경력관리

국내도서 > 외국어 > 일본어일반 > 일본어첫걸음

국내도서 > 시/에세이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취세 > 자기관리/취세

★ 책 소개

“코난밖에 모르던 내가
일본어로 먹고살아요”

그저 좋아하다가 잘하게 된 선님의 일본어 덕질기

26만 구독자, 조회수 4천 만뷰를 기록하며 일본어, 일본여행 전문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선님의 일본어 학습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솔직하고 긍정적인 애틀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님이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게 되기까지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비전공자에 학원 한 번 다녀보지 않았지만 각 잡고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덕질만으로도 ‘선님만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분 좋게 전달한다.

선님은 애니 덕질로 시작해서 3년 만에 JLPT N1을 취득하고 현재는 일본어, 일본여행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국어 강사, 일본어 강사, 작가 등 일본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소위 ‘일본어로 먹고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덕질로 쌓아 올린 ‘덕질 일본어’ 덕분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올해, 일본에 관심이 있거나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생에 치여 공부는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언어를 ‘공부’가 아닌 ‘덕질’ 하라고 제안한다. 정석적인 공부법이나 불타는 공부 의지가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이 일본어 실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선님과 일본어’에 대해 써내려간 솔직한 경험기를 읽다보면 일본어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 일본어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힌트, 나아가 인생에 필요한 마인드셋 포인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책을 펼쳐보자. 공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힘껏 즐길 마음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센님 #센님일본어 #센님덕질기 #덕질일본어

※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

1.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
2. 언어 공부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습자.
3. 일본어를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팁을 얻고 싶은 학습자.

특별 서비스

초판 한정 겨울 에디션 표지 커버 증정!



★ 본문 이미지



자취방을 구했는데요,
감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는 학교를 무대 삼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곧바로 입학부 단과에 학생회에 들어가 1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고, 2학년 때부터 대학교 홍보대사가 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각종 홍보 행사 제작과 영상 촬영, 임시 설명회 준비를 비롯해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해 임시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발탁 매진 각지에서 열리는 입학 박람회 참가까지.

늘 다양한 일정으로 캘린더를 봐야 하는 대학 시절을 보내며, 발탁 때도 한가하게 있다는 느낌이 비뚤게 생겼다고 있었어요. 막연히 앞으로 남은 2년의 대학 생활도 비슷

하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2020년을 맞아 대학교 3학년 겨울을 앞두고, 제 인생 첫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난생처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싫다고 기대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물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COVID19, 코로나 감염 사태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심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은 많았잖아요? 메르스, 사스 같은 유행병을 경험한 적 있으니 이번에도 "배려에서 전염병 못나는데", "아, 그대? 뭐 그러다 말겠지, 실마 여기까지 봐졌어" 같은 어문이 대세였고, 저 또한 그간 무심하게 밀치는 듯했지만 어느덧 진압되어 가려왔던 전염병들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어겼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취방 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끝낸 그 시점에, 거기가 한국에도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아시는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저의 파란만장 대학 생활, 자취 생활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그렇게 아주 소소하게 '일본어 공부' 할 만한 활동을 시작했죠. 일본어를 다시 배워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도 어떤 기회가 아닐까 싶고,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제복을 입고 보았던 축제장



나의 친해짐 애니메이션 선택하기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면 현실에서는 쓰지도 못할 말만 배운다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으. 많은 받고 받은 걸 믿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다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르는 정말로 다양하며,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장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놀라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의외로 좋은 어학 자료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기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볼 수 있는 대사가, 거의 모든 장면이 특정한 상황 속 인물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게다가어나나 다름없는 정확한 억양을 자랑하는 전문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하니, 초보자의 듣기 자료로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가운데 내 취향과 수준에 맞는 작품을 잘 고른다면 일본어의 친해짐은

데 더없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일부 혹은 전부를 볼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 오래되고 유명한 작품일수록 세계 각국의 언어로 더빙된 영상이 섞여 있으니 제목을 일본어로 검색하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에 나온 작품일수록 라프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정식 번역된 한글 자막과 일본어 자막을 바꿔가며 볼 수 있으니, 마음에 들었다면 재주행하여 자막을 활용하세요.

일본어도 애니메이션도 처음이면, 어떻게 시작?

어학 공부의 정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더니 뜻밖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드리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우선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와 친해지는 과정을 크게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1. 재미있다 싶은 애니를 본다.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중요

★ 본문 중에서

하지만 오로지 애니를 보기만 했을 뿐 다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만큼이나 들리다니, 공짜로 외국어 영역 하나를 개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신나더라고요. 딱히 돈을 아껴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굴려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싹짓돈이 눈앞에 나타난 기분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기에 더욱 부담감 없이 자막을 켜 채로 애니에 풍덩 빠져들 수 있었죠. 117p

이 책을 보고 계실 여러분도, 그리고 저에게 일본어 학습 관련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요. 제가 독학으로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생각 덕분이거든요. 언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덕질'하듯이 해야 돼요. 128p

한국어로 듣거나 말하는 시간보다 일본어를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일본어 회화가 느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졌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어느덧 일상 회화에는 어려움이 없어졌죠. 바로 그 무렵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건 거의 세미 유학 생활인데?' 책도 학원도 시험도 없이, 자취방 한구석에서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139p

재미로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늘 말하듯 '완벽하지 않은' 일본어로 시작한 콘텐츠가 어느덧 제 채널의 확실한 주역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약간의 팁을 주려고 시도했던 일이 도리어 제게 일본어 실력을 더 갈고닦는 기회를 가져다주기까지 했어요. 한국과 일본, 양쪽 구독자들의 관심과 함께요. 172p

'공부하지 않기, 공부로 느끼지 않기, 덕질로 하기'를 제 일본어 생활의 지침으로 삼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게 일본어는 외국어. 공식적인 시험대에 언젠가 한 번쯤 올라가야 했을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N4부터 N1까지 취득하는 여정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 한 기간이 N3 준비하는 딱 한 달뿐이었다는 것'을요. 208p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해보려 마음먹었을 때 기대감과 의욕이 퐁퐁 솟아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소한 일로 자신감을 잃기도 해요. 아직 그 무언가와 함께한 시간이 적고, 그 무언가를 할 줄 알아서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저에게,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며 써 내려갔어요.

“즐기는 것이 1순위, 계속 즐길 수 있다면 나머지는 차츰 해결된다.” 251p

★ 지은이 소개

센님(정세영)

일본어와 일본 여행, 일본 문화 소개를 메인으로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한 지 3년 만에 JLPT N1을 취득했다. 혼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새 26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로 성장했다. 현재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리포터, 한국어 강사, 온라인 일본어 강사 일도 겸하고 있다.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를 하는 일본인들은 물론,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일본어 실력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다. 그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아사히 TV, NHK, TBS 등 일본의 각종 방송에 출연하였고 YBM 일본어 동영상 강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이 책은 애니 덕질로 시작해 일본어로 먹고살고 있는 '센님과 일본어'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정석적인 루트로 각 잡고 공부하지 않아도 센님만큼 일본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란다.

| 저서 |

《여행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이지톡)

| 유튜브 채널 | @센님Sennim

| 인스타그램 | @sennimmmmm

★ 목차

Prologue

- 1. 일본어 4등급, 〈코난〉밖에 몰랐죠**
[센님의 One Point Lesson] 일본어와 친해질 준비
- 2. 집순이는 그렇게 덕후가 되어가고**
[센님의 One Point Lesson] 나와 친해질 애니메이션 선택하기
- 3. 덕질에 스며들기? 어렵지 않아요**
[센님의 One Point Lesson] J-POP으로 일본어 감성 즐기기
- 4. 애니만 봤는데 귀가 트였더니깐요**
[센님의 One Point Lesson] 외워야 한다면 최대한 게임처럼
- 5. 벽 보고 말해도 효과 있다니깐요**
[센님의 One Point Lesson] 말문 트기의 시작은 혼잣말 기법으로
- 6. 덕후와 크리에이터는 종이 한 장 차이**
[센님의 One Point Lesson] 회화, 무엇보다 자신감을 연습하세요
- 7. 얼렁뚱땅 JLPT N1 도전기**
[센님의 One Point Lesson] 초고속 JLPT 지름길 공부법
- 8. 회사를 뒤로하고, 워킹 홀리데이**
[센님의 One Point Lesson]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을 일본어

Epilogue